

Raymond Renard

벨기에 언어학자. Mons 대학 내의 국제 응용 음성학 센터 Centre International de phonétique appliquée 원장. 동 대학 언어학 과장. 저서로는 『발음교정을 위한 언어 청각 법 입문 Introduction à la méthode verbe haut tonal de correction phonétique』 외 다수.

음성학의 새로운 이해

레이몽 르나르

친애하는 동료교수, 청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께 음성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몽스 Mons대학에서 보고 있는 그대로의 음성학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음성학은 말의 소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아주 슬며시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갈 것인데, 그것은 음성학이란 결국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개론서를 볼 때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음성학은 과학으로서, 실험과학으로서의 비교적 최근의 학문이라는 점입니다. 유사 이래로 언어의 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언어는 단어를 형성하기 위하여 모인 소리들의 형태라고 정의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성학은 금세기에 특히 발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학은 언어학이 발달되던 시기에조차도 경시되었고 초기에는 언어학의 조그만 한 항목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간 음성학이 독립적인 학문인가 아닌가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음성학은 매우 복잡한 학문입니다. 개론서를 읽어 보면 d 온갖 종류의 음성학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론서들은 조음음성학, 생리음성학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어떤 생각이 조음기관의 위치라는 형태를 띠고 음성을 만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역사음성학에 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언어가 지금은 이렇게 발음되지만 옛날에는 저러했던 형태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식으로 언어를 설명한다면, 그리고 오늘날 이런 식으로 발음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이러저러했던 형태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식으로 언어를 설명한다면 그것은 역사음성학에 속하는 것

입니다.

저는 우선 공시적인 측면에서 음성학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성학에서 제 관심을 끄는 것은 어떤 언어이든 간에 오늘날의 그 언어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시적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흥미있는 접근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음성현상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형태로 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음성학적 현상이라도 우리는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접근방법은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는 접근방법입니다. 첫번째 질문, 그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물리학입니다. 청각 물리학이라는 물리학의 특별한 한 항목, 그것은 사람들이 청각음성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각음성학에서는 하나의 소리란 기압변화의 결과입니다. 제가 어떤 소리든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제가 기압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것이 340m/s의 속도로 공기중에서 전달되어 청각적 영향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음향현상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질문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답은 음향음성학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 그것은 어떻게 발생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조음음성학, 생리음성학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음성현상에라도 접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소리를 생산하는가? 사람들은 혀를 어디에 두는가, 입술은 얼마만큼 벌리는가 등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합니다. 이것은 생리음성학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고 전달된 소리가 어떻게 인지되는가? 그 소리는 듣기가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또는 그것이 무엇에 사용되는가?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인지음성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음향, 조음, 인지음성학라는 세 분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세 가지 접근은 오늘날 모두가 과학적입니다. 만약 첫번째 접근방법을 취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기기를 갖춘 실험실이 필요하게 되며, 이 기기의 덕택에 우리는 어떤 청각현상에 대해서라도 완벽하고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접근은 조음생리적 접근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근육의 압력을 보기 위한, 전기생물학 기계의 도움이 큼니다. 또는 가장 깊은 발성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확히 보기 위한 X선 사진 덕택이기도 합니다. 조음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혀는 18개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어나는 사실들을 정확히 알려면 모든 종류의 방법을 다 써 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과학기기는 어떤 음성현상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가치있는 완벽한 답을 줄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우리는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음향적 측면에서 조사할 때, 그 즉시 그것에 대한 어떤 특정한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현상을 조사하여 그것을 생리적인 측면으로도 설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번째 접근방법으로 넘어갑시다. 세번째 접근방법은 인지적 접근방법입니다. 그것은 내가 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거기서도 역시 사람들은 묘사를 하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소리를 내보냈을 때, 그 소리가 /i/ 또는 /a/, 아니면 /t/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절대적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물리적 현실과 생리적 현실과의 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적 현실과 지각적 현실과의 영구적 관계를 설립하는 것이 아주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리를 청각적으로 기술할 때 우리는 소리를 높이로서 정의합니다. 소리들은 어떤 높이를 갖는데 그것은 높은 소리일수도 있고 낮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리들은 강하거나 약한 강도를 갖고, 짧거나 긴 길이를 가집니다. 그것은 또 일정한 떨림을 갖는데 그것은 어떤 음색입니다. 제가 여기 소리 /a/가 있다고 말할 때 이 소리는 낮습니까 혹은 높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서로 다른 대답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종의 지각 사다리 내에 있고, 개인은 모두 고유한 지표로써 제 목소리가 낮다거나 또는 제 목소리가 높다고 지각하기 때

문입니다. 제가 이 소리가 강한지 약한지를 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 크게 말하는지 아니면 약하게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너무 높음을 느낄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주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에게 “소리 좀 낮춰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좀 낮춰 달라는 말은 좀 더 목직한 목소리로 말해 달라는 뜻입니다. 개념이 섞여 있는 것이지요. 어휘들을 통해 우리는 인지의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뒤섞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음색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음색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무엇보다도 모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음색은 자음에 대해서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언어들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어에서도 불어와 마찬가지로인데 근본적으로 대립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음색의 대립입니다. 그러면 음색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음색이라는 개념보다도 명확히 구분하기가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소리의 높이와 강도, 그리고 내적 복잡성에 동시에 관계된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거론할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생산되는가?”라는 문제에 대답하는 한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인지되는가라는 질문에 이르게 되면 곧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성학의 관심은, 과학으로서의 음성학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확인으로부터 제기된 문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음성학 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소통의 기호의 체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는가를 볼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번째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즉, 첫번째 문제들 중의 하나는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듣지 않는다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들을 때처럼 우리 자신이 한 말을 듣지는 않는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귀의 기능에 의해서 설명됩니다. 귀의 기능에 대한 도표를

그리하면 이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는 외이, 관, 청각관, 중이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이는 다시 등골, 침골, 모루뼈, 추골이라 불리는 일련의 잔뼈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선관 또는 달팽이관입니다. 그것은 내이에 속해 있으며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는 기초막이라 불리는 막이 있는데 여기에 대략 2만개 정도의 청세포가 있습니다. 그 액 속에 있는 약 2만개의 청세포는 기압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이것이 청관을 통과하여 막을 떨게 하는 소리의 청각적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막은 뼈의 체계를 통해 진동을 앞에 있는 다른 막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청신경이 있어서 신경의 충동을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소리가 있으면 이 소리는 기압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고막으로, 달걀모양의 창이라 불리는 입구로, 그리고 기초막을 통해서 청세포에 전달됩니다. 따라서 이 세포가 충동을 뇌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뇌가 원가를 인식하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 그것을 우리는 공기의 행로, 즉 공기의 전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공기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공기의 전도는 주파수의 진동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파장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귀가 16Hz에서 16000Hz까지를 인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청각체계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귀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소리는 서로 다르게 조건지워진 하나의 뇌로 도착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뼈 속에, 즉 두개골의 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뼈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좋은 전도체입니다. 공기는 진동의 좋은 전도체인데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나 콘크리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것은 모두가 좋은 진동의 전도체이죠. 이러한 사실은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인체의 내부에서 울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체 내부에서 특히 진동하는 것은 뼈인데, 피부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이것은 피부에 감도를 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것, 다시 말해서 공기에 의해 귀를 스쳐지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가 귀를 막고 계속 말을 하면 제 귀는 제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내부로부터 듣는것이지요. 이것을 뼈전도라 부릅니다. 이 뼈전도는 모든 주파수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모든 세포에 감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뼈전도는 300Hz 에서 4000Hz사이에서 잘 일어납니다. 이 영역은 전화의 영역과 비슷한 것입니다. 전화로 대화를 들을 때 우리는 고충실도로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300Hz에서 3000Hz사이의 제한된 청역의 띠에서 들을 뿐인데 이 범위가 사람의 귀에 가장 민감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 영역은 이미 뼈전도에 의해 자극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제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제 말을 듣는 것처럼 듣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자신의 녹음된 목소리를 들을 때, 꽤 놀랐던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와 비슷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음기나 확성기가 잘 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확성기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언어를 배우는 수업시간이 수화의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고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모델을 제시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그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말을 들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따라하세요”라고 말하고 학생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것을 들읍니다. 언어습득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언어습득이란 뇌의 차원에서 내가 말한 것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인식하는 방법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세 가지 접근방법들 중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세번째 접근방법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 때 강조했던 어려움을 설명해주는 첫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다른 문제들을 살펴보겠는데 이 다른 문제들은 개인들의 생리적 측면과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오히려 언

어의 경제성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음성학의 관점에서는 극단적인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두번씩 똑같은 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a/, /a/, /a/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같은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a/에 대한 분석을 하더라도 완전히 똑같은 두 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각각의 모음을 잘라서 작은 조각들을 비교하더라도 역시 그것들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4등분을 하더라도 그 중 하나와 같은 다른 하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들은 서로 닮았지만 서로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아무도 똑같은 것을 두 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변화,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둘째, 우리는 생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성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a/를 따라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a/를 말하겠지만 그 소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소리를 생산하는 강(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리적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언어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성학 수업을 들었다면, 소리가 음성연속체 속에서 그 위치에 따라 달라짐을 설명해주는 음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사성과 비유사성의 현상입니다. 제가 "Voilà une porte. La porte est grande. C'est une grande porte."라고 할 때 이것은 좋은 예가 됩니다. 두번째 grande의 마지막 자음은 /d/도 아니고 /de/도 아닙니다. 그것은 /t/입니다. "Voilà une robe. Elle est sale. C'est une robe sale." robe의 끝의 소리는 /p/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음 또는 자음은 그것들의 다른 모음과의 인접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 /t/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ti/또는 /tu/라고 소리를 내면 /t/는 뒤에 /i/가 오느냐 /u/가 오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 이론적인 방법으로 소리를 규명하려는 조음음성학을 신용하지 않는게 왜 좋은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i/가 전설개모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고전적인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물을 보는 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다양하게

하는 다른 방법은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거의 조음음성학적 발음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어에는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이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제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비록 원순모음일지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웃을 수 없습니다. 원순모음을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 저는 절대 진지해야만 합니다. 불어에서는 다른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간극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모음 /i/, /u/와 개모음 /a/, 그리고 모든 중간 단계의 모음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를 물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계속하면 이것은 모든 것이 열렸거나 모든 것이 닫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한 먹으면서 말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사중에는 우리 입안에 뭔가가 있을 때에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혀끝을 이에 대고 혀등을 민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입안에 무엇인가가 있으면 여러분은 입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보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많이 열리는 개모음 /a/를 말할 때 마치 /i/를 말하듯이 /a/라고 입을 다물면서 말하더라도, 그럼에도 들리는 것은 /a/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생리 음성학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위치에 놓는 대신에 당신은 그것을 어떠한 위치에 놓았다. 입술을 벌리는 대신에 그것을 내밀거나 들이민다”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 말하는 저 자신은 어쨌든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 발음을 조종하는 것은 제 귀입니다. 즉 제가 처해있는 어떤 조건 하에서 /a/를 발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제 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발음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첫번째 공식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공식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음성학이 지닌 기능의 다양성을 조사할 때, 음성학은 소리의 과학이기 때문에, 이 주

장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요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은 음성연쇄에서의 소리의 환경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무엇보다도 결합음성학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는 그것이 초분절차원에서, 말하자면 운율의 차원에서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Où allez-vous"라고 말할 때, 여기서 두 개의 /u/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첫번째는 두번째 것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같은 음색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까 높은 톤의 어조의 체계에 대해 말했는데, 높은 톤의 어조의 방법은 시각적인 모델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리의 잘 인지되지 않는 어떤 특징들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곧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어에는 /y/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y/음을 인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y/음이 /u/로 인지됩니까 아니면 /i/로 인지됩니까? 네 좋습니다. /y/음은 /u/보다는 /i/에 가깝게 인지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C'est une voiture?"라고 말할 때 제가 지금 말하는 /y/음과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y/음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에게는 /y/음보다 /i/음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i/음의 정확한 음색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국인들이 보통 저지르는 실수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난청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저는 경계성 현상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성학을 소개했고 음성학이 어떤 점에서 다양화되는가를 보여드렸고 또 소리의 다양성과 무한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어떤 언어라 할지라도 언어에는 서로 다른 무한한 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생동안 같은 모르지만 수백조의 소리를 냈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서로 다른 소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소리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여러분들의 청자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따라하고자 했다면 그들 역시 그만큼의 숫자에 해당되는 소리들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언어의 소리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왜 소리를 만드는 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철학공부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를 결합하여 언어,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반 - 소리들의 무한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 위에 있다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의 무한성이 있다면 내 머리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를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차이들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합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속해서 /a/, /a/, /a/, /a/, /a/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모음 /a/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a/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의 경제성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언어는 결국에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생겨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이 합의는 이러한 수십억 개의 소리들을 제한된 경로로 만드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음성학에서 음운론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다시말해서, 즉 기능주의 음성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유형의 음성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컨대, 제 생각에는 그것이 가장 흥미있는 음성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별적이지 않은 차이들, 유용하지 않은 차이들, 그리고 의사소통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에서는 하등의 유용성도 없고 단지 실험실 내에서 음성학자들에게만 관심을 끌 뿐인 차이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음성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음운론의 차원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음운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음운론은 결

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연속적으로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단위로 구성된 체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저는 지금 제 발표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오로지 분절의 차원에만 위치하기도 합니다. 모음이나 자음들의 차원, 또는 반모음들의 차원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차원에서는 살펴볼 때, 모든 언어들은 수십개의 단위들, 사람들이 음소라고 부르는 수십개의 단위들로 구성된 체계에 이르게 됨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어에 음소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불어에는 30개에서 36개 정도의 음소가 있습니다. 고전적 방법으로는 36개, 아방가르드 음성학자들에게는 30개인데 이들은 전설의 /a/와 후설의 /ɑ/라는 두 개의 /a/를 인정하지 않고, /ɛ/와 /œ/등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아방가르드의 입장을 취한다면 30개의 음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36개의 음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수십억개의 변이체들이 마침내는 음소라고 불리는 30개 혹은 36개의 단위들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명백히 뇌의 활동의 차원에 존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어떤 표지의 속성이나 특질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뼈들의 결합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고 그것을 코드라고 부르는 좌표계 속에 통합하는 것은 바로 뇌의 활동의 차원인 것입니다. 언어학에서는 이 때의 코드를 음소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는 한 언어의 음소체계라고 하고, 좀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할 때는 음운론 체계, 곧 제가 말씀드릴 음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초분절적 체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뇌의 차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거쳐가는 30개의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데는 보통 5 내지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가정이나 학교, 환경 등의 외적 조건에 의해 우리가 마침내 “아니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유년기입니다. 마침내 여러분들은 환경의 음운론적 체계인 코드

에 의해서 정해진 의미로 여러분의 청각을 방향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운론적 체 *crible*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이 생각 - 음운론의 체계에 대한 생각 - 이 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30년대의 트루베즈코이, 야콥슨, 빨리바노프 등의 프라그 음운론학과 맞입니다. 이러한 생각, 즉 음운론의 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우리의 뇌는 체처럼 작동하여 의사소통의 잘 이루어지도록 정말 유용한 것만을 통과시킨다고 말한 사람은 바로 빨리바노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 즉 물리적 혹은 생리적 현실과 지각 사이의 완전한 합치를 발견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들로 되돌아가 봅시다. 사실, 음운론 체계, 음운론적 체, 그리고 음운론적인 난청, 그것들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음운론적인 난청. 우리는 우리의 언어 이외의 언어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것이 아닌 언어들을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강요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 7년 동안 단련되었고 통로의 체계는 완벽한 체계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곳을 통과하여 선택됩니다. 그런데 이 때의 선택은 다른 언어들의 선택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칠판에다가 소리를 표기하고 싶다면, 한 언어의 모든 소리들을 두 개의 축을 갖는 도표로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음음성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체계를 잘 압니다. 여기에 열린정도를 표시하고, 여기에는 폐모음들을 두고 여기에다가는 개모음들, 그리고 여기에다는 조음점이라고 부르는 것을 표시합니다. 조음점이라고 하는 것은 혀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 혀와 구개 사이가 가장 좁아지고, 혀가 앞에 있으면 전설모음, 혀가 뒤에 있으면 후설모음입니다. 이 체계로써 여러분은 잘 알려진 /i/, /u/, /a/의 모음삼각도를 그리게 됩니다. 물론 불어의 예를 든다면, 4단계의 열린정도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a/는 매우 열린 소리이고 /i/, /y/, /u/는 닫힌 소리입니다. 여기에는 반쯤 닫힌 소리가 있고 저기에는 반쯤 열린 소리가 있습니다. 불어의 /y/는 조금 더 닫힌 소리입니다. 또 /e/, /ø/, /o/, /ɛ/, /œ/, /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불어에는 10개의 구강모음이 있고 4개의 비모음이 있습니

다. 그런데 제 설명은 구강모음에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제가 막 말씀드린 무한한 소리들은 여러분이 이 위에서 발견하는 무한한 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점들은 모두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불어화자의 머리 속에서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모든 점들이 /i/처럼 포착됩니다. 그런데, 저 영역에 있는 점들은 모두 /y/처럼 포착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려 보이는 것은 불어 음소의 체계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막 불어의 음소 체를 그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외국어를 배우는 프랑스인, 그리고 불어화자들의 난청 유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랍어같은 언어를 예로 들면 그 극한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아랍어는 /i/, /u/, /a/ 세개의 음색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세 개의 음색은 세계의 모든 언어에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랍인들은 /i/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i/음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또 /u/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u/음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것은 가능한 모든 소리들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모음으로 들는 수백조의 소리들이 몇개의 통로를 지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경로는 자신들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a/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랍어로 /salit/, /salut/, /salet/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아랍인들은 그것들을 항상 /salit/로만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i/음만을 경로로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시 말해서 /i/음 경로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곧 이것이 난청, 음운론적인 난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난청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실제로는 뇌의 차원에, 또 코드의 차원에 맞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에서 출발하여, 이제 저는 제가 어떤 점에서 음성학이 우리에게 모든 언어기능의 모델로 간주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언어현실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음성학에서 분절음성학, 분절들의 연쇄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바로 하나의 연쇄입니다. 이 말은 언어가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고저가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약 “Ça va?”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제게 “Ça va.”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Ça va?” “Ça va.” 그런데, 그것은 물론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음성학에 대해서 말할 때, 한동안 완전히 무시되어 왔던 음성학의 한 부분을 이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음조론에 관한 첫번째 회의가, 제 기억이 맞다면, 1967년에 부다페스트에서 실제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음조학 Intonology”에 관한 첫번째 회의였습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이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서로 모여 그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토의할 기회를 1967년에서야 마련한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방금 전에 저는 음성학이 비교적 최근의 학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특히 생리음성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음성학 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무시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초분절에 관한 것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문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레비스 Grevisse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간주되는 불어 문법책을 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을 쓴 사람이 벨기에의 불어권 동포 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Le bon usage』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두꺼워지는데, 그것은 루뱅 Louvain 대학에서 그레비스를 계승하고 있는 제 동료 구스 Goosse가 그레비스의 문법을 계속 개량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 수를 늘이는 것이지요. 항상 늘여야 할 페이지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께 『Précis de grammaire de Grevisse』를 사용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훨씬 부피도 적고 다루기도 훨씬 편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Il est onze heures vingt-sept, il va falloir que j'aille vers ma conclusion.”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막 두 개의 절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어학적으로 그것을 분석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과절, 혹은 원인절이라는 두 개의 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레비스 문법책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이상의 것과 관련된 몇 페이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로 든 표현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Il est onze heures vingt sept, il va falloir que je m'arrête.” 여러분들은 또한 “étant donné qu'il est l'heure,”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은, 표현을 바꾸어서 “Je vais devoir m'arrêter étant donné que”라고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parce que”나 “puisque”도 마찬가지입니다. “Comme il est l'heure, je vais m'arrêter.”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Je vais m'arrêter comme il est l'heure.”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레비스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란 명백하게 이해가능한 것은 아니며, 언어는 언어의 기능을 이해하고자 했던 언어학자나 문법학자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들었던 예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음조에 근거한 오로지 구어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교육학적 관점에서 그러한 표현의 이로움을 설명하실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어를 가르칠 학생에게는 제가 문어를 가르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혼자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에게는 제가 comme나 puisque, 또는 étant donné 등과 같은 문법적으로 모호한 문제들은 피해갈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장의 번조를 이용하기만 해도 저는 그 학생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도록 할 것입니다.

50년대 말 프랑스에서 기본 프랑스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것은 프랑스인들과 문법학자들에게 커다란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서들러서 외국인들에게 언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 때,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읍시다”라고 말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석구석에 녹음기를 두었고 대화를 녹음하고, 후에 그것으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자주 쓰이는 가를 보기 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프랑스인들은 1500단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라고 하더라도 1500단어만 알면 일상대화의 대부분의 주제에 있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1,500단어, 그것이 기본 프랑스어입니다. “Voix-Image France”라는 시청각 방법이 나온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그것은 250시간만에 초보자에게 불어를 가르칠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초보자는 프랑스에서 연수를 할 수도 있고 프랑스의 대학강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500단어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프랑스 지식인에게 그것은 분명 경악이었습니다. 그들은 *Le Petit Larousse* 사전이 6만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Le Petit Larousse*는 작은 *Larousse* 사전이었으므로 기술용어 없이 10만 단어를 포함하는 *Grand Larousse*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용어를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일상대화가 아닙니다. 중세어휘, 원자공학, 또는 다른 과학의 어휘를 든다면, 그것은 수백만 단어가 될 것입니다. 기술용어는 수억 개나 되는 엄청난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1,500단어가 배워야 할 것이라면 내게 그것을 주시오. 나는 기억력이 좋으니까 매주 100단어씩 15주만에 외우리다. 좋습니다. 내가 언어를 소화해내겠습니다.”라고 말한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것이 여의치 않았나요? 언어의 경제성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내에 초분절적인 것 역시 도입했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선율과 박자와 강세, 즉 사람들이 대개 음조, 또는 문장의 음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도입했을 때만 그것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것을 소화해냈다면 그 때는 여러분들은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quel’이라는 단어와 ‘femme’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몰라도 한 여인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

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그 여인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두 개의 단어만을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라몽 Gramond은 “les trente manières de dire oui”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비교적 고전적 음성학자입니다. Oui에 30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정을 뜻하는 oui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날 여러분들의 사장에게 “내달부터 월급이 두 배로 오른다는 것이 사실인가요?”라고 물으면, 그것은 사장 마음에 달려있겠지만, 그가 불어사용자라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Oui, oui, certainement”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non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언어의 기능으로 되돌아 갑시다. 저는 여러분들께 무엇이든 하나의 소리는 공기의 진동의 결과인 청각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동은 일정한 주파수를 가집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소리의 내적인 구성입니다. 그러면,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저는 방금 여러분들께 우리의 스펙트럼, 우리 인간들의 스펙트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개의 스펙트럼과 돌고래의 스펙트럼은 서로 다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펙트럼은 초당 16에서 초당 16,000사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6,000Hz요. 그것은 고충실도입니다. 언어의 어떤 소리라도, 어떤 모음이든 또 어떤 자음이든 그것들은 이 스펙트럼을 따라 주파수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예로 모음 하나를 듭시다. 뭔가가 있지만, 그것은 아주 가늘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각할 따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소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봅니다. 사실, 우리의 청각은 어떻게 기능합니까?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기능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a/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a/를 듣고 저 역시 듣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바로 총체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고 그것을 충실히해서 이것은 제거하고, 저것은 연장시키고, 또 저것을 제거하면, 무엇이 일어날까

요? 여러분들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a/는 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너무 많은 것을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사진을 볼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사진을 보면서 “아, 자크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자크의 한 부분을 자릅니다. 그것은 물론 당신이 어떤 방향으로 자르는 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이 사진을 반쯤 잘라냈어도, 당신은 여전히 절반의 자크를 가진 셈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똑같이 그것이 자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분중에도 얼굴모습만 나와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크의 얼굴만을 봅니다. 그것으로도 자크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모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잉여적 총괄성입니다. 언어차원에서건 뇌의 차원에서건 이해를 위해서는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지표를 통해서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몇몇 요소들에 기초하여 이 전체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사진 하나를 급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누구요?”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자크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크를 알고 있다는 조건에서죠. 자크는 이미 여러분의 머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크를 기다리고 자크가 늦습니다. 여러분은 저기에 있고 한 무리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한 순간에 “나는 그를 봤다”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다시 군중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분을 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부분에 기초해서 현실을 구성한 것입니다.

음성학이 우리에게 제공한 모델은 잉여적 총괄성입니다. 그것은 구조화될 것입니다. 이 구조화는 어느 정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무의식적인 이 현상에 대해 토론할 것이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조금 전에 언어에는 지적인 것이 없고 무의식적인 것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빠를, 소리의 기초가 되는 것들 중의 하나라고 간주

할 수 있는 것들의 가장 작은 점에 근거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검토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소리들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음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몸짓을 하는 것을 보십니다. 저는 일어나 견고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언어의 비구술적 측면인 것이지요. 비구술적인 것 역시 빠를을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몸짓을 빠를에 결합시키는 것, 그것은 주어진 조건에서 의사소통을 돕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구술의 의사소통에 분명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술의 의사소통이란 음성학이지 글쓰기가 아니며, 그것에는 구술체계뿐만이 아니라 비구술체계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때 결국은 소체계인 일련의 체계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음소의 소체계입니다. 그 옆에는 음조의 소체계가 있습니다. 또한 문법의 소체계, 어휘의 소체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활동 속에는 언어학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일련의 소체계들을 가지며 각 개인은 이 소체계에 의존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의사표시를 할 때, 제가 어떤 한 생각으로부터 다른 다른 생각으로 옮겨가게끔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했으므로 다음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제가 가지게 되는 순간적이고 빠른 인상입니다. 이처럼 사물에 대해 갖는 저의 관점은 총괄적입니다. 이 총괄성은 잉여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제가 안 해도 될 동작을 추가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듣는 여러분은 저를 보고있고 결과적으로 저의 어떤 잉여적인 동작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해합니다. 이제 각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체계를 이용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바로 여기에 너무도 많은 수단들로 인한 잉여성과 총괄성의 개념이 있게 되기에 선택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또한 바로 여기에서 구조화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있는 저와 제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노력은 상관적인 노력, 다시말하면 저는 저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명확히 말해야 하고 여러분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이 구조화입니다.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서로 같지 않은 요소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가 “자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뜻하지 않게 생각난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 저것이 그가 이전에 하고싶어 했던 말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나중에 “제 발표중에서 무엇을 이해하셨습니까?”라고 묻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예,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게끔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게 여러가지 다른 이유들을 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제 말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화에 근거하여, 개인적인 몇몇 요소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제 발표를 구조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란 다소간의 소체계들의 공유가 아니면 과연 무엇인가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소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음조론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스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문법적인 것과 어휘적인 것이 있습니다. 각 개인은 다소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모든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각 개인은 또한 무엇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흥미있는 것을 골라낼까요? 그가 포착하고자 하는 의미와 관련하여 또는 자신의 의미와 관련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어를 잘 모른다가나 불어 어휘가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거나 제 움직임을 따라오는 것이 더 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놓쳐버린 단어들을 시선이나 몸짓이 보충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잉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로 하여금 구어나 문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구어의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어와 문어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보게끔 합니다. 구어의 특성은 아주 잉여적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시간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멈출 때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10분이상 십오분 동안 집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시간 반 이상을 이야기를 했으므로 여러분들은 벌써 몇번이고 잠들 시간을 가진 셈이죠. 저는 연설을 임의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만 궁지에서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소들을 기초로 구조화를 하게 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문어로 옮겨가자마자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어를 마주하고 있다면 시간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글을 쓰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끔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가장 적은 단어로 가장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능한 한 가장 명쾌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간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고 같은 문장들을 두번씩 읽고, 또한 두서너 페이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 모든 발표의 결론은 언어의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 음성을,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다감각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된 감수성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를 인위적인 조건들 내에서 언어를 포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무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사실 여러분이 받아들인 상황들에 의해서 조건지워진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자 이것이 그가 말한 것이다”, 또는 어떤 순간에 “나는 저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받아들인 것. 감수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질문이 있다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김진동 역>